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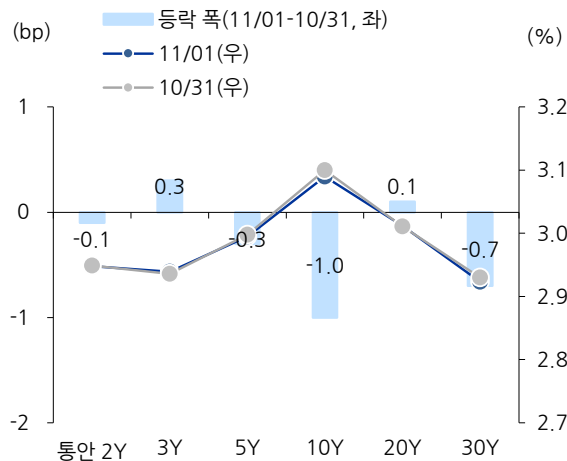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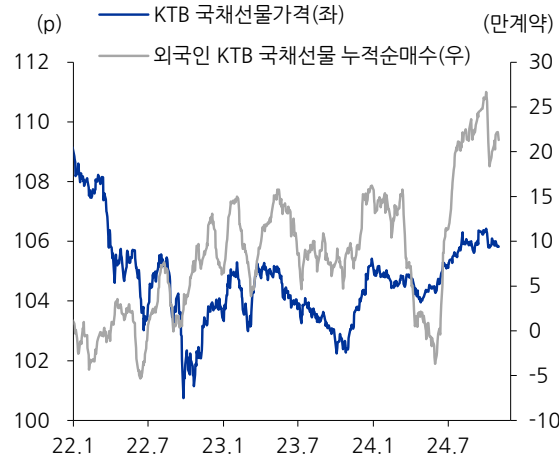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1/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39%	0.3	5.7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90%	-1.0	3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5.1	16.4	17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82	-3.0	-18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6.23	0.0	-37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08%	3.5	10.2
	미국채 10년물	4.385%	9.9	14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17.7	11.4	13.5
	독일국채 10년물	2.405%	2.0	11.4
	호주국채 10년물	4.538%	3.2	12.5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
- 완만한 약세로 출발하였으나 이내 강세 전환. 수출이 2개월 연속 한자릿수 증가하는 등 부진하였고, 저가매수세도 꾸준히 유입. 아시아장 중 미국채 금리도 하락
- 다만 미 고용보고서 앞둔 경계 등으로 매수세가 적극적이지 않았음. 장 후반 3년 금리는 재차 반등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NFP, 예상(10만건) 크게 하회한 1.2만건 증가, 20년말 이후 최저치 기록. 다만 응답률이 매우 낮았고, 허리케인/보잉 파업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인식 확산
- ISM 제조업 지수, 예상 및 이전치에 못미치며 위축국면에서 7개월간 머물고 있음
- 시장은 이날 고용/제조업 쇼크 보다 11/5일 예정된 미 대선 경계감을 키우며 약세 마감. 재정 적자 및 국채 공급 증가 불가피한만큼 장기금리 상승폭이 부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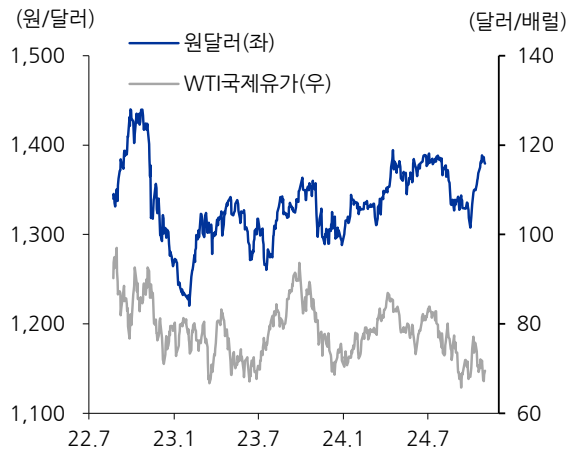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1/1일	1D	1W	YTD
원/달러	1,379.40	-0.0%	-0.7%	7.1%
달러지수	104.32	0.4%	0.0%	3.0%
달러/유로	1.083	-0.4%	0.4%	-1.9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14	0.2%	0.0%	0.2%
엔/달러	152.99	0.6%	0.5%	8.6%
달러/파운드	1.292	0.2%	-0.3%	1.6%
헤알/달러	5.87	1.4%	2.8%	20.9%
WTI 근월물(\$)	69.49	0.3%	-3.2%	-3.0%
금 현물(\$)	2,736.35	-0.3%	-0.4%	32.6%
구리 3개월물(\$)	9,570.50	0.7%	-0.3%	11.8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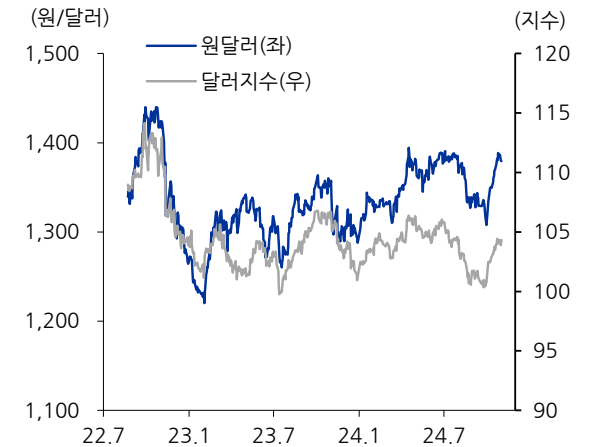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0.50원 하락한 1,379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78.00원 마감.
- 전일 BOJ 회의 영향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약세 전환. 달러-원도 전거래일 대비 -4.40원 하락 출발.
- 그러나 장중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 고시 이후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-원도 낙폭 축소.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.3으로 예상치(49.7)를 웃돌았지만 큰 영향은 없었음.
- 이날 발표된 한국 수출은 +4.6%(Y) 증가, 일평균 수출은 1년 여 만에 처음으로 전년비 감소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고용 쇼크에도 상승세 지속.
- 미국 10월 고용은 +1.2만 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를 10만 명 가량 하회. 발표 직후 달러 인덱스는 급락.
- 그러나 이번 고용 위축이 일회성 요인이었다는 인식 확대에 달러는 급반등. 오히려 장 후반에는 미국 대선 경계감 속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에 연동.
- 10월 ISM 제조업지수는 46.5로 연중 최저치 기록. 전반적인 수요 부진과 대선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작용.
- 금주 미국 대선 및 FOMC 예정.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환율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높으나, 레드 스윙만 아니라면 달러 강세는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.